맞이하기

*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.
*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.

말씀요약

*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. (bit.ly/31moim)

은혜 나누기

*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.

*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,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.

*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?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?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?

- 절망스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
-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? 그 방식과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?

함께 기도하기

*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?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.

*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.

들어가며

이사야와 두 아들은 시대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.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임박할 심판과 마침내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였습니다.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더 깊은 흑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. 하나님은 그럼에도 구원의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십니다.

1. 빛이 될 한 아기

이사야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흑암을 몰아내는 빛으로 그려집니다. 무엇보다 하나님은 외세의 침략으로 잦은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 지역에 빛이 비출 것을 말씀하십니다. '이방의 갈릴리여!' 여기가 이방인지 이스라엘 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끝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겪었던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.

환난과 흑암 속에 머물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칩니다.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광명이 찾아옵니다. 주님께서 나라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, 굶주렸던 백성들이 추수하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. 늘 약탈당하던 이들이 이제는 전리품을 나누며 즐거워 할 것입니다.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곤고와 그들을 짓누르던 고통은 사라지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압제하던 대적의 막대기를 꺾으시고,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

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? 그 이유는 한 아기, 곧 한 아들의 탄생으로 설명됩니다. 그 아기의 이름은 '기묘자 모사', '전능하신 하나님', '영존하시는 아버지', '평강의 왕'입니다. 이 이름들은 이 아기가 장차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. 그는 지혜로운 왕입니다.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. 그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그의 나라도 영원할 것입니다. 그 나라 가운데 이 왕은 평강을 베풀 것입니다.

2. 하나님의 열심

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한 왕, 곧 메시아의 탄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.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,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졌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. 결국 이사야 6장부터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, '거룩한 씨', '임마누엘 아기'의 약속은 다윗 왕가를 재건할 왕의 탄생으로 성취될 것입니다. 그 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며, 암흑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.

우리는 이 믿지 못할 약속이 가장 절망스런 시대에 주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.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새로운 역사를 꿈꿀 수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, 희망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.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"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", 인간의 기대와 노력 의지로부터 실현되는 꿈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.

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에 기초합니다.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흑암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. 그 백성을 향한 무한한 자비, 곧 그분의 신실하심은 매일 마다 새롭습니다(렘 3:22-23). 이 신실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.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갈릴리와 그 인근 가버나움에 거주하신 일을 이사야에게 주셨던 약속, 곧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칠 것이란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(마 4:12-17). 예수님은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(천국)를 이 땅에 가져오신 왕이십니다.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, 기꺼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스스로를 맞추어 주셨습니다(빌 2:6-8). 이는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.